

전남, 친환경벼 인증 확대...농가 찾아가는 교육

23일까지 22개 시군 돌며 인증·재배기술 안내

직불금 인상·생산물량 전량매입 대상 등 내용

전남도가 정부의 유기농업 확대 기조에 맞춰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한 현장 교육에 들어갔다.

직불금 인상과 공공비축미 전량 매입 등 제도 개선으로 판로와 소득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신규 재배 농가를 적극 확보해 감

소세를 보이던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반드시 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23일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신규 친환경 벼 재배 희망농가와 기존 친환경 농가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전남도가 공동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 신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2308ha 늘려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2020년 이후 이어진 벼 인증면적 감소 흐름도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2024년 3만5000ha에서 2030년 7만3000ha로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벼 재배 여건이 예년보다 나아졌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직불금은 ha당 유기농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공공비축미 수매가격도 일반벼보다 5%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규 친환경 벼 생산물량도 전량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은 친환경 인증과 재배기술을 중심

으로 진행된다.

1교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절차와 유기농 원리, 영농일지 작성법 등 인증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2교시에는 생육 단계별 관리와 토양·병해충·잡초 관리 등 친환경 벼 재배기술을 다룬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직불금 수령 요건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인증 신청 부담도 일부 완화됐다.

과거 1년간 경영기록 작성 의무 대신 작

기 시작일부터 인증 신청 시점까지의 기록만 제출하면 되고, 친환경농업 2년간 의무 교육을 이수한 뒤 인증서를 10월31일까지 내면 직불금도 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받고 직불금까지 연계해 지원받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판로와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친환경 벼 재배에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천일염값 하락 대응...수출·소비 확대 해법 찾는다

간담회서 근로자 실태조사·중국 판로 개척 등 대책 논의

전기요금 완화·저장시설 지원 건의...산업 체질 개선 추진

전남도가 천일염 가격 하락과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되자 산업 전반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단기 가격 안정에 그치지 않고 수출과 소비 확대를 병행해 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전남도는 8일 도청에서 ‘천일염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하락 대응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천일염 가격은 국제 경제 변화와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월 1만2846원이던 가격은 같은 해 12월 8322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6673원까지 낮아지며 생산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생산자,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과제로는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를 비롯해 소비 촉진, 수출 확대 전략,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특히 중국 자매·우호 교류 도시를 활용한 수출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소금 특화 생산단지 조성하고 한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사용 전환, 저장창고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단순 원물 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과 유통, 수출까지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준다는 구상이다.

손영근 전남도 수산유통과장은 “천일염은 전남을 대표하는 해양자원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장성군 소재 한 축산농가에서 이광일 전남본부장과 고광현 장성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 전남본부,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장성 축산농가서 식재행사...축산냄새 저감 등 기대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장성군 소재 한 축산농가에서 이광일 전남본부장과 고광현 장성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사 주변에 방취림을 조성해 농장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광일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참여

를 유도하고, 주변 농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농가 지원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방취림 식재 사업은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본부는 앞으로도 쾌적한 축산환경

확산과 지역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방취림 조성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축사와 지역사회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금융환경 대응

상호금융 여신 틈새교육 실시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지역농협 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상호금융 여신 틈새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여신추진부 소속 강사 3명이 참여해 상호금융 여신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최신 여신상품과 금리 심무, 관련 제도 및 기업여신 심사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개인·기업 여신 상담과 심사 기법 교육은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롤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감과 집중도를 높였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상호금융 여신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는 지역농협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농업인과 고객에게 보다 정교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전남 새청무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진입

순천·장흥·해남 쌀 7기 출하 전국 7개 공장서 제품 생산 GS25·더프레시 원료 공급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가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간편식 원료로 공급되며 전국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기존 공공·가공식품 중심에서 편의점 간편식 시장까지 판로를 넓히면서 쌀 소비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8일 순천농협RPC에서 GS리테일과 협력해 새청무 쌀 출하 상차식을 열었다.

물량은 순천농협과 장흥 정남진통합RPC, 해남 화산농협에서 생산된 물량으로, GS25와 GS더프레시 간편식 제조공장으로 납품된다.

이 쌀은 전국 7개 공장에서 가공돼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으로 생산된 뒤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전남도는 8일 순천농협RPC에서 GS리테일과 협력해 새청무 쌀 출하 상차식을 열었다.

성장하고 있는 간편식 시장을 겨냥한 판로 확대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석식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료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간편식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향후 운영

전남신보, 전국 첫 DDR 도입...채권 효율관리

(채권관리 등급 분류 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5단계 등급별 관리...맞춤형 재기 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전국 최초로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채권관리 등급 분류 시스템인 'DDR (Debtor Data Rating)'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DDR 시스템은 협소한 속성 항목만을 반영했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정밀하게 점수화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신보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기존 항목은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7종의 신규 지표를 도입해 관리 속성을 총 14개 항목으로 재편했다.

세밀하게 도입된 핵심 지표에는 상환 이력, 휴·폐업 정보, 가족 소유 부동산, 거주 주택 규모, 분기별 신용평점 변동 등이 포함돼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실제 상환 능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카드 신규 발급 여부와 같은 금융활동 관련 데이터도 반영해 스코어링의 정밀도와 변별력을 높였다.

전남신보는 DDR 시스템을 통해 채권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자동 분류해 회수 가능성 높은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검토, 강제집행 가능성 등 맞춤형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리한 독촉 대신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거나 채권 상각 또는 소각 등을 검토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 재기를 돕는다.

또한 시스템 안정화와 대상분류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등급별 리밸런싱(Re-Balancing)을 능동적으로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강근 이사장은 “DDR 시스템은 공공데이터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채권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효과적 모델이다”며 “확보된 회수 자원을 다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선순환시키는 동시에, 한계채무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 농·축협, NH농협생명 연도대상 대거 수상

홍양농협 4년 연속 1위...고흥농협·여수축협·진도농협 '2년 연속'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은 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38회 NH농협 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남 지역 농·축협 12곳과 임직원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도대상은 NH농협생명 보험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실적과 성장세를 보인 사무소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대표 포상 제도다.

전남 농·축협은 다수 사무소가 연속 수상에 이름을 올리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입증했다.

특히 홍양농협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고흥농협·여수축산농협·진도농협은 나란히 2년 연속 사무소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사무소 부문에서는 홍양농협, 진도농

협, 고흥농협, 여수축산농협, 목포원에농협, 소안농협, 군서농협, 삼호농협, 득량농협이 수상했다. 신상품 부문은 순천농협, 건강보장 부문은 군서농협과 여수축산농협이 각각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김도은(군서농협)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문인숙(북평농협)·박선미(목포무안신안축협)·이수연(화산농협)·류정희(홍양농협)가 동상을 수상했다. 김미라(남신안농협)·김정숙·김아름(선진농협)·이대성(평결농협)은 우수상을, 임지연(전남낙농농협) 등 12명은 헬퍼대상상을 수상했다. 건강보장특별상은 김도은(군서농협)과 박승현(목포원에농협)에게 돌아갔으며, 학습조직 부문에서는 광양농협 '광양편사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수자원 관리 드론운용단 출범식

농업기반시설 효율 관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드론을 활용해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 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과 드론운용단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원관리분야 드론운용단 출범식'과 '드론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드론 활용 전략과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드론운용단원들이 정밀 비행과 목표물 촬영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조종 역량을 높였다.

공사는 현장에서 드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93개 지사에 드론 153대를 보급해 물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드론운용단을 출범했다.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운용단은 1만4000여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검하는 등 드론 활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